

## 바지형태의 지역적 특성과 변천과정에 관하여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박 춘 순  
국제복식학회 연구원장 박 경 자

目 次	
I. 序 論	III. 바지의 양식과 유형분류
II. 바지의 양식변천	IV. 결론

### I. 序 論

복식사를 더듬어 보면 주로 上半身衣에 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인류문명의 발상지는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보온을 위한 의복의 필요성은 적었을 것이며, 특히 열대지방에는 下半身을 감싸는 의복이 더욱 필요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下半身衣가 있었다 해도, 上半身衣가 의복이 갖는 모든 표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上半身衣는 표현을 위하여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반면에 下半身衣는 항상 上衣에 가려져 거의 노출되지 않았으며, 兩脚의 문제가 있으므로 표현성보다 활동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동서복식사를 더듬어 보아도 上衣나 그것이 연장된 長衣 즉 一部式衣에 대한 나열에 지나지 않고, 下半身衣는 항상 그늘에 가려져 노출됨이 없이 고대와 중세를 거쳐오다가 근세가 되어 겨우 上衣와 동등한 인정을 받기에 이르러 현재의 서양복이나 동양복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全世界의 男女가 어떠한 형태로든 모두 下半身衣로 바지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의

발생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이 바지가 스키타이민족에서 유래되었다는 상식적인 통념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학문적 의문을 품지 않았다. 또한 유교적인 측면에서인지 아니면 야만족인 기마민족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종족적 차별 관념 때문인지 동서양에서 바지의 수용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특히 서양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보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바지의 기원을 살펴 볼 만한 자료가 거의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이에 관해서 심도있게 연구한 논문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더우기 바지에 관해서 각종 고증을 행한 학자들도 그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계의 현실을 감안 해 볼때 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연구는 매우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본 논문은 바지가 어느 지방 어느 민족에서 최초로 발생했으며, 그것이 어떤 경로로 각 민족은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에 따라 바지를 어떤 형태로 변형시켜 착용하여 왔나를 연구하여 바지의 기원과

전과, 착용과 형태의 변천을 고찰하고 나아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바지의 유형을 분류하여 그 분포와 계보를 밝히고자 하였다.

## II. 바지의 양식변천

### 1. 고대 바지의 발생

#### 1) 스키타이인의 바지

일반적으로 문화는 각 종족의 생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발전한다. 스키타이인들은 근본적으로 유목을 하는 종족이었음으로 문화적 특성도 유목 민족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목민족은 여기저기 이동하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끝없이 이동하는 민족이다. 이동한다는 것은 곧 정착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결국 이동하기에 편리한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스키타이 문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들의 생존과 관련있는 것으로서, 기마의 풍습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스키타이인의 모든 일상생활은 이동하고 기마에 편리한 경향으로 흐르게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의복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즉 말을 타기에 편한 옷을 즐겨 입게 되었고 이것이 스키타이인의 대표적인 복식으로 발전한 것이다. 바지는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복장이었다.

#### 2) 페르샤의 바지

페르샤인의 복장을 개관해 보면 크게 두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접촉을 가졌던 메디아인의 캔디스와 속에 바지를 입은 관의형식의 왕공귀족의 복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이 동방 고원지대를 고향으로 하는 페르샤인 고유의 전통적 복식으로 소매 달린 튜닉과 바지의 착의형식이 있어 벌써 이때부터 바지양식은 노동계급의 복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페르샤가 추운 북방지대에서 이란고원으로 이동했을 때 이미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지를 처음 입은 민족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이전의 민족교류의 역사를 밝히지 않고는 단언을 내릴 수는 없다.

### 3) 게르만의 바지

게르만인은 당시 갈리아인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튜닉에 긴바지가 그들의 전통적인 복식이었다. 이들의 바지의 종류에는 초기에는 다리에 밀착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헐렁한 바지가 주로 착용되어 바지부리를 오무린것, 톱니모양으로 장식한 것 등도 있었고, 그 위에 무릎밑을 맨 것, 다양한 양식으로 가죽끈으로 돌려 맨 것등이 있었다. 반유목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던 켈트나 게르만인은 스키타이 사르마트 훈족등 동방의 스텝 유목민 생활문화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서양의 바지착용은 초기에 게르만인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중세에는 노동계급을 제외하고는 긴바지는 경멸시 되었고 호즈나 브리치즈 즉 타이즈나 무릎에 오는 반바지는 경멸시 되었고 호즈나 브리치즈 즉 타이즈나 무릎에 오는 반바지 형태로 이어져 오다가 프랑스 혁명부터 오늘날 서양복의 긴바지가 등장한다.

### 2. 이슬람의 바지양식

#### 1) 서아시아의 바지

이슬람인들은 동양의 바지형식에다 서양의 드레이퍼리를 융합시켜 사막이라는 기후풍토 조건에 합치되는 샤르왈을 만들어 내었다. 중국문화권의 동양의 바지, 게르만이 전한 서양의 바지, 그리고 제삼의 바지형식인 이슬람의 바지 샤르왈이 출현하여, 각지역은 각민족의 풍토에 따라 그 모양을 조금씩 달리 하는 바지형태를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 서양복바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착용되고 있는 것이 샤르왈일 것이다.

#### 2) 중앙아시아의 바지

이 지역은 이슬람의 본고장인 서아시아와는 거리가 있었으며 물론 이슬람권이나 기후적인 조건으로 샤르왈이 바지통이 좁아지는 대신 당이 나타나서 이것을 보강해주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 스키타이계 유목민 바지, 중국바지의 영향을 받은 것 같으며, 바지의 허리가 보이지 않고 細紐를 사용하는 방식은 오로지 이슬람 바지인 샤르왈계통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중앙아시아의 바지가 샤르왈에서 발전된 것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3. 중국의 바지양식

중국에서는 일찍이 춘추시대 말부터 전국시대에 걸쳐 북방유목민의 侵寇가 현저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漢人 諸國家들은 고유의 전투법이나 무기 등을 채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戰車에서 기마전법으로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군사들의 복장을 개변하게 하여 趙의 武靈王이 처음으로 호복을 도입하였다. 이리하여 戎服등으로 착용되어 오던 호복은 後漢부터는 袴褶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착용되어 오다가, 북위와 唐代에서는 한때 朝服으로까지 격상된 적이 있었다. 이 袴褶의 착장상태는 南北朝시대 이후에 확실하여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본래 袴褶은 胡服에서 시작하였으나 시대가 경과함에 따라 변천하여 戎服에 적당할 만큼 기능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晉代에 별도로 戎服이 있었으며 隋代에도 袴褶이 불편하다 하여 새로이 戎衣를 사용했다. 이로 보아 袴褶은 소매가 길지 않은 廣袖에다, 袴는 大口와 小口가 있었고 大口는 縛袴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 4. 우리나라의 바지양식

上古時代의 우리나라의 衣服의 制度는 모두 下半身에 바지형이었다. 이 바지 형태와 착용 방법은 다양하였으며 통일신라시대의 바지는 상당히 고급 직물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兵士의 폭이 좁은 窮袴, 일반인의 寬袴가 있었고, 양식에 겹고와 단고가 있었고, 소재에는 綾, 絹, 苧등이 사용되었다. 朝鮮朝에 들어 實錄과 諸文獻의 기록을 통하여 보면 18세기 중반기부터 袴에서 把持로 기록하였고, 여자의 바지는 前期에는 袴와 裏衣라는 표현이 병용되었고 後期에는 裏衣라는 표현이 많았으며 末期에 현대의 명칭이 된 것 같다. 남자바

지에 褲바지, 袴바지, 縮바지, 누비바지가 있었고 여자도 騎乘時에 襪袴를 착용하였고, 樂工服으로 버선 달린 大口袴가 있었다. 유물을 통한 바지모양을 살펴보면 고려시대까지는 閉股式이었으나 조선조에 開股式으로 발전한 것 같다. 그리고 조선조 말기의 의복개량 운동에서 前後閉股式의 개량바지로 변하여 현대에 이르고 있다. 남자바지는 조선시대를 통하여 볼때 큰변화는 없었고 초기보다 바지통이 좁아졌다. 여름에 袴衣가 있었고, 노동시에 잠뱅이가 있었고, 縮바지, 袴바지, 縮바지, 누비바지가 있었다.

### 5. 일본의 바지양식

일본고유의 의복은 관두의 계통이었으므로 바지가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바지형 의복이 도입된 후로 적어도 동일본일대에서는 바지 일색의 풍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나양시대에 중국 당조의 고와 끈이 도입되어 바지착용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평안시대에 대륙과의 국교가 단절됨으로 해서 대륙문화에 대한 동경은 더욱 깊어져 바지폭과 길이가 길어져 귀족들은 서민들과의 차이를 보이도록 노력했다. 처음에 활동에 편리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던 바지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생활에 불편하게 되자 바지를 입지 않는 습관이 되었고 바지는 예장용으로만 남아있게 되었다.

## Ⅲ. 바지의 양식과 형식분류

### 1. 자연환경적인 요인

#### 1) 기후에 의한 구분

기후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寒帶酷暑	體型形	에스키모族, 람프族
熱帶 原始民族	腰紐形	熱帶 原始民族
沙漠性 乾燥	寬闊一體形	아라비아 半島, 北아프리카
多雨性 乾燥	開放一體形	熱帶아프리카, 아마존, 東南아시아, 太平洋西南群島
夏乾冬濕	體型形	西歐, 北歐
夏濕冬乾	體型形, 開放形	韓國, 中國, 日本

## 2) 풍토에 의한 구분

풍토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몬순형	寬袴形	한국, 중국, 일본
사막형	廣袴形	이슬람지역
목장형	體型形	유럽지역

## 3) 지역에 의한 구분

지역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第一地域(東洋)	寬袴形	한국, 중국, 지역
第二地域(西洋)	體型形	유럽지역
第三地域(中洋)	廣袴形	인도, 이슬람지역

## 2. 사회환경적 요인

## 1) 생업에 의한 구분

생산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遊牧牧畜民	體型形	유럽, 스키타이, 게르만
稻作農耕民	寬袴形	한국, 중국, 일본

## 2) 종교에 의한 구분

종교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基督教	體型形	유럽지역
이슬람교	廣袴形	이슬람지역
儒教	脛衣	중국

## 3) 성별에 의한 구분

성별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남자	開股式	한국
여자	開股式	한국

## 4) 계급에 의한 구분

계급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지배계급	廣袴, 長袴	동양, 서양
서민계급	來袴, 短袴	동양, 서양

## 3. 구성적 요인

## 1) 성형정도에 의한 구분

성형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非成型바지	卷付式	인도의 도티
半成型바지	廣袴形, 寬袴形	이슬람의 샤르왈, 동양의 바지
成型바지	體型形	서양복 바지

## 2) 착용형태에 의한 구분

착용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끄는 바지	長袴形	일본
발목에 오는 바지	大蟻袴形, 體型形	중국, 일본, 우리나라, 서양
오무런 바지	寬袴形, 廣袴形	일본의 指貫, 四幅高, 한국남자바지

## 3) 착용방법에 의한 구분

착장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帶	寬袴形	한국, 중국, 몽고
細紐	廣袴形	이슬람지역, 노인우라바지, 한국여자개량바지
革帶	體型形	서양, 일본의 山고
腰紐	寬袴形	일본의 바지, 한국의 여자바지

## 4) 개구부 위치에 의한 구분

개구부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前開型	體型形, 開股形	서양바지, 한국여자바지
後開型	開股形	한국여자바지, 중국개당고
片脇開型	寬袴形	한국의 여자바지, 일본의 大口
兩脇開型	寬袴股形	일본의 바지류
全閉型	寬袴形, 廣袴形	한국, 중국, 몽고, 노인우라바지, 이슬람의 샤르왈

## 5) 재단형에 의한 구분

재단형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直線形	廣袴形	이슬람의 샤르왈
平面形	寬袴形	한국, 중국, 일본, 몽고
立體形	體型形	서양의 바지

6) 재질에 의한 구분

재질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피혁	體型形	스키타이, 페르샤, 게르만, 중앙아시아
직물, 펠트	廣袴, 寬袴, 窄袴	이슬람의 샤르왈, 중국, 한국, 일본, 서양바지

7) 당의 유무에 의한 구분

襠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襠袴	寬袴形	한국여자바지, 일본바지, 노인우라, 중앙아시아바지
無襠袴	廣袴, 體型形	이슬람의 샤르왈, 일본의 행등, 서양바지
斜幅袴	廣袴形	한국, 중국, 몽고의 바지

8) 股의 개폐에 의한 구분

股 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開股式	寬袴形	한국여자바지, 중국아동바지, 정창원바지
閉股式	廣袴, 寬袴, 窄袴	샤르왈, 일본, 한국, 중국바지, 서양바지

9) 실루엣의 형에 의한 구분

실루엣구분	바지의 형태	대상 지역
長方形(H形)	體型形	서양바지
三角形(A形)	寬袴形	한국, 중국, 일본, 몽고의 바지
長圓形(O形)	廣袴形	이슬람 바지

V. 結 論

本稿는 오늘날 우리들의 기본적인 腹飾중의 하나인 바지를, 그 起源과 祖型 그리고 그 變遷과정을 고찰해 보고, 각 民族의 전통적인 고유한 바지를 비교 검토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바지의 특징을 밝혀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비교 검토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16가지의 分類基準을 도출하고 이 기준에 따른 바지의 類型分類를 시도해 보았다.

바지의 起源과 祖型을 살펴보면 허리에 두르던 腰衣가 下部로 延長되어 바지가 形成된 점으로 보아 腰衣를 바지의 첫째 起源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다리에 두루던 脛衣가 上部로 延長되어 바지가 形成되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바지의 두번째 起源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또한 日本의 山袴나

모모히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朝鮮朝 樂工服이었던 襪袴 등이 바지의 原始的 形態를 보이고 있음으로 바지의 祖型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바지의 樣式 變遷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歷史上 가장 먼저 바지를 착용해 왔다고 인정되고 있는 스키타이 民族의 바지 착용 실태부터 고찰해 보았다. 스키타이인이 거주했던 中央아시아는 氣候의 影響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바지를 착용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스키타이인은 이 바지 착용을 통하여 일찍부터 騎馬戰術을 發展시켜 周邊民族을 制霸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주변 민족에게 바지를 전파했다. 페르샤인이 스키타이인의 바지를 착용하고 이란 高原으로 南下하여 原住民 메디아 族을 누르고 페르샤 帝國을 건설하였고, 北歐의 極寒地方에 根據를 두고 있었던 게르만인이

기후가 온화한 남쪽으로 이동하여 黑海 北岸에 이르러 뒤에 따라 스키타이인과 교류를 통하여 바지 착용을 배웠고, 이들 게르만인들은 바지를 착용하고 로마에 침투하여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西洋에 있어서 바지 착용의 習慣은 게르만에 의해 소개되었으나 中世와 近世에 있어서는 긴바지형식이 경멸되어 반바지 형태로 착용하여 오다가 프랑스 혁명 이후 오늘날과 같은 모양의 긴바지로 變遷하였다. 사실 西洋에 있어서 긴바지의 歷史는 2世紀에 지나지 않지만 오늘날 全世界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西洋바지의 靚麗性과 審美性 그리고 實用性에 있다고 보겠다.

다음에는 역사상 각국에서 유행하고 존재했던 바지의 형태와 현재 각국의 민족복으로 남아있는 모든 바지류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바지류는 크게 자연 환경적 요인, 사회 환경적 요인, 구성·착용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들을 다시 세분하여 바지의 유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분류 기준은 비록 세밀하지는 못하지만 바지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선별한 것이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스키타이인들이 服飾史上 처음으로 考案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窄袴形式의 바지는 그 뒤 周邊 여러 文化圈에 전파되었으며 各 文化圈은 自身들의 文化와 趣向에 맞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갔다. 스키타이인의 바지가 匈奴를 통하여 中國, 우리나라, 日本에 전파되어 東洋바지의 基本이 되었고, 페르샤에 전파되어 이슬람바지인 샤르왈을 발달시켰고, 게르만에 전파되어 오늘날 西洋바지의 基礎가 되었다. 따라서 바지형태는 지역적 문화적 특성에 의하여 多様な 樣相을 보이게 된 것이다. 스키타이에서 시작된 窄袴形式으로 復歸한 현상은 스키타이인의 바지가 모든 바지형태의 發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키타이인이 착용했던 최초의 바지형태가 갖는 복식사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東西 服飾史를 살펴보면 바지를 착용하는 民族이 우세한 지위에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바지를 착용한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지의 實用性에 있다.

오늘날 世界文化를 바지양식으로 나누어 본다면 우선 東洋과 西洋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으로 대별될 수 있어 이들이 각각 세계의 대표적인 세가지 바지형태를 착상하고 있다고 보겠다. 이들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스키타이인에서 비롯된 바지가 중국과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동양의 바지를 형성하였고, 아케메네스조 페르샤에 전파되어 이슬람의 바지인 샤르왈을 탄생시켰고, 게르만에 전파되어 서양복 바지의 기초가 되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남기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女子바지류와 日本 江戸時代의 袴(げっち)와의 관련성이다. 또한 샤르왈의 초기형태가 출현한 과정도 불투명하고 샤르왈에 當이 첨가되어 중앙아시아의 바지가 형성되었던 중간 과정도 문제가 된다. 또한 노인·우라의 바지와 정창원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의 개량바지와 관련성의 문제도 남아 있다. 본 논문은 바지연구의 하나의 출발점으로서 계속해서 미비점은 앞으로 보완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秋田成明譯, 「支那歷代風俗事物考」, (東京 大雅堂), 1943.
- 原田淑人, 「增補漢六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 「支那唐代の服飾」, (東京大學文學部紀要 第西), 1920.
- 長亮采, 「中國風俗史」, (上海 上海商務印書館印行), 1923.
- 「敦煌壁畫服飾資料」, (北京 中國古典藝術出版社), 1958.
- 張末元, 「漢代服飾參考資料」, (北京 人民美術出版社), 1959.
- 馬長壽, 「北狄與匈奴」, (北京), 1962.
- 王宇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印行), 1967.
- 楊志謙, 「唐代服飾資料選」, (北京 北京市工藝美術研究所), 1979.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臺北 商務印書館),

- 1981.
- 林成子,「六堆客家傳統衣飾的探計」,(臺北 原色印刷有限公司),1981.
- 周錫保,「中國古代服飾史」,(北京 中國戲劇出版社),1983.
- 「中國歷代服飾大館」,(臺北 百齡出版社),1983.
- 項春宋編,「遼代壁畫選」,(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1984.
- 鳥丙安,「中國民俗學」,(遼寧 遼寧大學出版),1985.
- 「中國歷代服飾」,(上海 上海戲校 學林出版社).
- 「中國苗族服飾」,香港博物館展出(香港),1986.
- 華梅,「中國服裝史」,(天津 天津人民美術出版社),1988.
- 「古代人の化粧と装身具」,(東京 創元新社),1963.
- 「西域發見の繪畫に見える服飾の研究」,(東洋文庫),1914.
- 梅原末治,「蒙古ノイソ・ウラ發見の遺物」,(東洋文庫論叢),1960.
- 高橋健自,「日本服飾史論」,(大登閣藏版),1927.
- 高橋健自・宮本勢助,「原史時代の風俗」,(雄山閣版).
- 田中尚房,「歷世服飾考」,(東京 吉川弘文館),1928.
- 江上波夫,「騎馬民族國家」,(東京 中央公論社),1967.
- 猪熊兼繁,「古代の服飾」,(東京 至文堂),1962.
- 宮本響太郎,「民俗民禮雙書 24」,(光明社),1968.
- 永島信子,「日本衣服史」,(東京 藝術堂出版),1968.
- 關根眞隆,「奈良朝服飾の研究」,(東京 吉川弘文館),1974.
- 小川安郎,「服裝原論」,(東京 光生館),1976.
- 杉本正年,「東洋服裝史論攷古代・中世編」,(文化出版局),1979.
- 村上憲司,「西洋服裝史」,(創元社),1967.
- 「服裝の歴史全五卷」,(東京 理論社),1979.
- 元井能,「日本・西洋被服文化史」,(光生館),1970.
- 遠藤元男,「織物の日本史」,(日本放送出版協會),1971.
- 栗原弘・河村まち子,「時代衣裳の縫い方」,(源流社),1984.
- 長澤和俊,「シルク-ロド」,(校倉書房),1962.
- 林良一,「シルク-ロド」,(美術出版社),1962.
- 岩村忍,「シルク-ロド」,(日本放送協會),1966.
- 加藤九祚・長澤和俊・護雅夫,「シルク-ロド」,(筑摩書房),1983.
- 井上泰男,「衣服の民族誌」,(文化出版局),1982.
- 「ふたん着のヨ-ロッパ史」,(平凡社),1987.
- 梅棹忠夫・多田道太郎,「日本文化の構造」,(講談社),1972.
- 周達生,「中國民族誌」,(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1970.
- 田中日佐夫,「日本美の構造」,(講談社),1975.
- 丹野郁,「西洋服飾發達史」古代・中世編,(光生館),1976.
- 李如星,「朝鮮服飾考」,(自楊堂),1947.
- 金貞培,「韓國民族文化の起源」,(一志社),1973.
- 李京子,「韓國服飾史論」,(一志社),1983.
- 柳喜卿,「韓國服飾文化史」,(教文社),1982.
- 朴京子,「韓國服飾論考」,(新丘文化社),1983.
- 「出土服飾 及 喪禮」,(忠北大學校博物館),1983.
- 尹乃鉉,「韓國古代史新論」,(一志社),1986.
- 崔在錫,「日本古代史研究批判」,(一志社),1990.
- 「百濟の 大和倭の 日本化過程」,(一志社),1990.
- 「韓國古代社會史方法論」,(一志社),1987.
- 金元龍,「韓國考古學研究」,(一志社),1987.
- 「韓國美術史研究」,(一志社),1987.
-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1973.
- 朴龍雲,「高麗時代史」,(一志社),1988.
- 朴容淑,「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一志社),1976.
- 安輝濬,「韓國繪畫史」,(一志社),1980.



田溶新譯,「日本書記」,(一志社),1989.

權兌遠,「韓國社會風俗史研究」,(景仁文化社),1980.

金鐘太,「中國繪畫史」,(一志社),1976.

「韓國畫論」,(一志社),1989.

崔柄憲·金錫煥,「韓國文化史·古代篇」,(一志社),1986.

閔賢九·李基白,「韓國文化史·高麗篇」,(一志社),1984.

李泰鎮·韓佑勳,「韓國文化史·朝鮮前期篇」,(一志社),1984.

李成茂·韓佑勳,「韓國文化史·朝鮮後期篇」,(一志社),1985.